

지역 소식통

완주군의회, 수해현장 방문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수해현장을 방문, 주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한 현장의정을 펼치고 있다.

이날 김재천 완주군의장을 비롯한 송자용 도의장, 완주군의원들은 완주군내 수해현장을 방문, 수해 지역 주민들과 복구 작업에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피해주민들을 위로했다.

김재천 의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장을 점검한 후 '연일 계속된 비로 군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물을 철저히 살피고 피해상황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완주=이종복기자

김제시의회, 호우 피해 지역 현장방문

김제시의회 온주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청하면 산사태 현장, 백구 마산천 침수구역, 금산 청도천 사면 유실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 7일~8일 이틀 동안 김제지역의 297mm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전 지역에서 산사태, 농경지 침수, 도로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지역 복구 상황 등을 집중점검 하기 위해 긴급히 이뤄졌다.

피해현장을 점검한 온 의장과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함께 참석한 시청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피해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특히 상습침수구역인 백구 마산천 인접 하우스단지의 경우 배수장 설치 등의 주민피해 방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온주현 의장은 '오늘 방문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타 피해지역도 직접 점검해 나가겠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해를 입으신 분들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 의장과 시의원들은 지난 주말 폭우 속에서도 개별적으로 지역구 피해지역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집행부에 대해 마련을 긴급 지시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제=곽노태기자

역대급 폭우 피해 현장 방문

김제시장,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하고 신속한 피해복구에 모든 역량을 다해 줄 것" 당부

김제지역에도 지난 7~8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 발령과 함께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를 가동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했다.

재대본에 따르면 이틀간 김제시 평균 우량은 271mm, 최고 강우량은 황산면 368mm로,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경지 및 주택 침수, 하천 역류 및 도로파손 등 공공시설물 많은 수해가 발생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8~9일 만경강 및 마산천 수위가 상승, 백구면 난산마을과 마전마을 주민 25세대 38명을 난산초등학교로, 배수로 범람으로 주택 및 하우스단지가 침수된 청하면 내신 마을주민 10세대 15명을 착산경로당으로 임시 대피소를 지정, 긴급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피해주민을 격려 위로했다.

또한, 8월 9일 집중호우 소강에 따라 8.8일 수해가 심했던 지역 청하산마을, 마전마을, 마산천, 용복천, 유각천등을



재방문하여 주민들을 격려했으며, 특히, 마전마을에서는 위급했던 8일 상황을 "재대본 매뉴얼에도 없는 아이디어로 펌핑하는 대형양수기 3대를 동원하여 침수 중이던 주택 144동과 하우스등에 도움이 되어 가슴이 뭉클"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는 김제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 및 배수개선을 시행하여 재해위험 해소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8.9일현재 농작물 침관수는 3,818ha 발생되었고 읍면동에서 피해 접수중이다.

김제시는 그동안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에 대비해 하천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사전대비의 중요성을 느끼고, 향후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역사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김제시 지평선아카데미, "천년 역사를 만나다" 역사 특강 진행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시민 명품강좌 지평선아카데미가 8월에는 "천년 역사를 만나다"라는 테마로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후3시 시청 대강당에서 '역사 특강'을 진행한다.

먼저 8월 13일에 개최되는 제606회 강연은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역사를 통해 배우는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 역사를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8월 27일 제607회 강연은 김두규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를 초청하여 '운명을 바꾸는 풍수이야기'라는 주제로 풍수에 관한 다양한 사례에 현대적 해석을 덧붙여 실생활에서도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제 지평선아카데미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참석인원을 90명



으로 제한하고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체온측정, 문진표 작성 및 강연장 소독 후 운영되며, 강연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김제시청과 읍면동에 설치된 IPTV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집에서 DIY(Do it Yourself)로 태교해요"

감염병 취약한 임산부 위한 태교 DIY 물품 꾸러미 전달

완주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산부를 위한 비대면 임산부 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완주군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임산부교실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임산부교실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교육자료와 DIY(Do it Yourself) 출산 육아용품 꾸러미를 집으로 배송해 임산부들이 직접 DIY물품을 만들며 태교에 열중하고 있다.

7월에는 기저귀 파우치, 한방손소독제 및 한방향주머니, 압화액자 등 산모가 직접 가정에서 만들어 태교할 수 있도록 DIY물품을 전달했다. 임산부들

은 자신이 만든 물품들을 선보이며, 솜씨를 뽐냈다.

군은 연휴가 끝나는 8월 27일부터 다시 진행할 예정으로 추후 전달될 DIY 물품은 장구 배계, 흑백모빌, 수면조끼 등이다.

완주군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의 편의증진과 수요자 요구에 부응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임산부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는 전화(063-290-3055) '해피맘 밴드' (<https://band.us/n/a3a691eb00bc>)로 신청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기자



김제 드림스타트, 'Act Together' 문화 체험

김제시 드림스타트는 10일 금산문화복지센터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가족 아동복지교사 등 51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Act Together' 가족 문화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Act Together'는 무박 2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제한된 아동 및 가족들에게 탁 트인 공간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문화생활 체험을 위해 마련했다.

첫째날은 코딩과 보드게임, ZOOM 화상 수업 시연, VR 가상현실 체험 등 미래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둘째날은 완주 '놀토피아'와 참포마을 현장체험과 고정욱 동화작가의 강

연을 통해 도전정신과 함께 배려하는 것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전 행사장 소독 실시 및 체열 측정기 사용과 대형버스 2대로 띄어 앉기'를 준수하고, 발열체크와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였다.

소연속 여성가족과장은 "경제적 여건으로 다양한 학습과 체험의 기회가 적은 드림스타트 아이들이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액티비티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운 여름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드림스타트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13개 읍면 이장·부녀회장 주민교육

2021~2022 완주방문의 해를 앞두고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주민교육을 시작했다.

10일 완주군은 2021~2022 완주방문의 해를 추진함에 앞서 13개 읍면 이장,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위기 조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서는 행정과 주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13개 읍면 지역 리

더를 대상으로 교육에 나섰다.

교육에서는 군민들과 함께 준비하는 '방문의 해 맞이 3+ 실천운동'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방문의 해 성공의 초석을 다지는 기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준 높은 환대서비스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완주=이종복기자

김제시 공무원시험준비반, 올해 합격생만 4명 배출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민선 7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에서 2020년도 제1차 경찰공무원 합격생 배출 소식을 전해왔다.

김제시 인재양성과(과장 이성문)에 따르면 지역 청·장년층 취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운

영하고 있는 공무원시험준비반에서 작년 8명, 올해 초 3명에 이어 1명의 합격생을 추가로 배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제시는 작년 3월 공무원시험준비반 수강생 90명을 선발해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전문 강사들이 직접 김제에 내려와 강의하는 직강프로그램과

관리형 독서실 프로그램 및 전 과목 동영상 강의 프로그램 등 개인별 학습 수준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현재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준비반은 공무원시험 전문학원인 노랑진에 위치한 박문각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